

글로벌 웹툰 기업 '케나즈·오노코리아' 순천에 등지 튼다

본사·제작 기반 등 단계적 이전...글로벌 문화산업 메카 기대 웹툰 제작·유통, 인재양성 아카데미 등 협력 사업 적극 추진

순천시가 민선 8기 핵심 현안사업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첫 실험이 될 웹툰 기업을 유치하면서 K-디즈니 순천 조성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3일 '2024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 행사에 글로벌 웹툰 기업 (주)케나즈 본사와 한프 합작법인 오노코리아 한국지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사 이전을 발표하고,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양 기업 유치는 지난 6월 프랑스 안시에서 체결한 '순천시-케나즈-프랑스 오노'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기업

유치를 위한 시의 꾸준한 노력과 순천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기업, 작가들의 니즈까지 '삼합'이 맞아 떨어진 결실이다.

먼저 (주)케나즈와 프랑스 미디어 콘텐츠 그룹 MPP의 자회사 '오노'가 공동 출자한 합작법인 '오노코리아'의 한국 지사는 서울에 있는 소재지를 연말까지 순천으로 이전한다. 초기 선발대는 5명 규모이며, 단계적으로 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외 450여명의 웹툰 작가와 250여 개의 IP를 보유한 (주)케나즈도 현재 제



노관규 순천시장과 순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글로벌 웹툰기업 케나즈·오노코리아 두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순천 그리아일랜드를 걷고 있다. <순천시 제공>

주도와 서울에 소재한 본사와 웹툰 제작 기반들을 2025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규모는 총 50여명

이다. (주)케나즈의 본사 이전이 마무리되면 글로벌 웹툰 제작·유통, 인재양성 아카

데미 등 웹툰 분야 전반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순천시, 오노코리아 한국지사

와 함께 순천에서 추진한다. 순천시는 이번 웹툰 기업 유치를 시작으로 순천 이전 의사를 밝힌 애니메이션, 웹툰 기업 30여개소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영상·AI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콘텐츠 기업 유치까지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이전 기업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정착 기업들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해 순천을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가 웹툰,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며 "순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케나즈와 오노코

리아가 견실한 지역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재 (주)케나즈 대표는 "케나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 있게 웹툰을 제작하는 회사로 450여명의 작가들이 순천을 선택했다"며 "순천으로 본사를 이전에 순천을 글로벌 웹툰의 메카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아이나라 이파스 프랑스 오노 대표는 "오노는 지난 50년 동안 프랑스에서 만화과 웹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미디어 그룹으로, 최근 프랑스 독자들이 한국 웹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와의 지원을 받아 유럽 독자들에게 한국 웹툰을 전파하고, 한국 독자들도 만나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순천=정기기자

장성군, 청년센터 건립 준비 '착착'

내년 연말 개관 예정...창업공간·다목적홀 등 공간 조성

장성군이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청년센터(조감도)' 건립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정보공유, 자기계발, 여가선용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장성군은 2022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청년센터 건립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총사업비 25억원을 확보, 읍·시가지 장성군민회관 인근(영천리 148-6-4, 787-9)에 1천600㎡ 규모 부지를 마련하고, 현재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면적 600㎡, 2층 건물에 일자리센터와 창업공간, 회의실, 상담실, 다목적홀 등을 갖출 예정이다.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가 12월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접근성 좋은 읍시가지에 청년활동 거점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청년들의 활발한 소통·교류, 창업 활성화, 인구 유입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장성군은 이 밖에도 ▲대학생 등록금 ▲주거·자립·활동분야 7개 지원사업 ▲전입·결혼축하금 지급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청년의 성장을 돕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청년



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성장장성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워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장성군은 취업 준비생을 위해 4박5일간 무료로 면접정장을 빌릴 수 있는 '성장웃장'을 운영하고 있다. 장소는 스튜디오라이브팜(청운1길 15 1층)이다. 장성 거주 청년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사전예약 후 면접증명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장성=김문태 기자

보성군-美 미디어시, 서재필 박사 정신 잇는다

상호 발전·우호 교류 협약 체결...문화·예술·교육 등 협력

보성군이 미국 미디어시와 양 시·군의 발전과 서재필 박사의 정신을 잇기 위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5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델라웨어 카운티 법원 광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밥 맥마흔 미디어시장, Dr. 모니카 테일러 델라웨어 카운티 의장, 최정수 서재필기념재단 회장을 비롯해 펜실베이니아주 상·하원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보성군 출신의 서재필 박사와 미디어시에 있는 서재필기념재단 간의 깊은 역사·문화적 인연을 바탕으로 이뤄진 가운데 양 도시의 문화유산을 연결하며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9월 서재필기념재단 관계자 100여명이 보성을 방문해 서재필 생가, 서재필기념관, 보

성차별 등을 탐방하며 양 도시 간의 깊은 유대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매년 재단 관계자들이 보성을 방문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 도시는 상호 신뢰와 호혜적 평등 원칙에 따라 관광, 문화·예술, 교육, 경제, 정인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필립 제이슨(서재



/보성=임병연 기자

농협 담양군지부, 벼베기 체험·아침밥 먹기 캠페인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는 "최근 수북농협이 개최한 '제4회 어린이 벼베기 체험 행사'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행사는 이기북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장을 비롯한 양남군 수북농협 조합장, 홍성용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 농정지원단장, 박다인 농정지원단 과장, 가족 등 100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모심기 체험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직접 재배한 벼

를 옛 전통 농기구인 낫을 이용해 베고, 출타와 죽담식 탈곡기로 벼단의 낱알을 떨어내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체험을 마치고 스텝을 받은 35명의 아이들에게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소문은 담양 쌀을 증정했다.

양남군 수북농협 조합장은 "수북농협 벼베기 체험장은 전통 농사법을 재현해 농민들의 정성과 농사의 소중함

을 알게 해 준 공간"이라며 "이번 체험행사가 아이들에게 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기북 담양군지부장은 "어린이들이 벼를 심고 수확까지 해보는 체험 활동을 통해 쌀 한 톨, 쌀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배우길 바란다"며 "아침밥을 꼭 챙겨 먹어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가 최근 수북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일원에서 열린 '제4회 어린이 벼베기 체험'에 참가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참가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 제공>

공영민 고흥군수,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 점검

생산 농가 애로사항 청취...'벼멸구 피해 벼 전량 매입'

공영민 고흥군수가 수확기 벼 수매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5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4일 풍양면 죽시창고에서 2024년산 공공비축미 첫 수매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024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건조

벼 매입에 돌입한다. 이날 현장에 찾은 공영민 군수는 벼농사 작황 상태를 점검하고, 쌀값 불안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들을 격려했다. 올해 고흥군 공공비축 수매는 친환경 벼와 가루 쌀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88%가량 증가한 9천3천500톤 매입

대상 품종은 새청무와 강대천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된다. 농가는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당 4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받으며, 연말에 최종 정산을 받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호우·벼멸구 피해 벼 전량을 매입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물량을 추가 배정,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흥=최봉환 기자

화순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당부"

가입 품목·일정 상이...지역농협 방문 확인

화순군은 5일 "작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약 17억원의 예산을 수립,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 대상 농작물은 7종이며 지역별 가입 품목이 다르고, 품목별 가입 일정이 상이하므로 농업인이 먼저 지역농

협을 방문해 구체적인 일정 등을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재하더라도 품목별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른 만큼, 재배작물의 가입 일자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신청 이후에는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면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현재 가입 품목은 ▲오디 ▲포도 ▲매실 ▲자두 ▲복숭아 ▲오미자로 오는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시급치의 경우 기존 9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였던 보험가입 기간을 11월8일까지 연장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871)에 문의하면 된다.

최충남 농업정책과장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 영농 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경여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장흥군, 재난안전관리 성과 빛났다

행안부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전 분야 호평

장흥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5일 장흥군에 따르면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등 9천300만원을 확보했다. <사진>

지원 받은 특고세 등은 2025년 안전도제고를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재난관리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이뤄졌다.

장흥군은 지난해 추진한 재난안전관리 6개 분야(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가감점)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자체장 인터뷰에서 김성 장흥군수는 재난관리 총괄자로서 재난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기관장의 관심

/장흥=노형록 기자

